

2023 순전한 믿음 3

회복!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치유와 회복의 차이점)

[학개 2:9]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 시작

[학개 2:9]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고레스 칙령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절을 바꾸신다. 고레스 칙령을 기준으로 그들의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지는 것이다. 노예로 있었던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고, 고향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실제적인 문이 열렸다. 그런데 이 일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주어진 자유가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페이지다.

‘시작이 반이다’

[스가랴 4:6-7] 6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7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고향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비전이다. 그리고 이 비전을 위해 모든 것이 허락되었다. (법적으로, 자원으로 - 은과 금, 사람 등)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다. 고향으로 가는 길은 가깝지 않다. 1500km나 되는 먼 길이다. 쉬운 길이 아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기 전에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오늘 말씀은 이런 시작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스룹바벨에게 내린 말씀이다.

비전을 본 사람은 많다. 약속의 땅을 본 사람도 많다. 예수님을 본 사람도 많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화시킨 믿음이 있는 사람은 드물다.

‘혈루병 여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혈루병 여인 하나다. 그래서 그녀는 치유를 경험했다.

‘지붕을 뚫은 친구들’

죽어가는 친구를 살리려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죽어가는 친구를 내려보낸 사람들은 한 팀이다. 그리고 그들은 치유를 경험했다.

‘홍해, 요단강’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절망의 바다에 선 민족은 많다. 그러나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민족은 이스라엘뿐이다.

마찬가지다. 아무리 약속이 있어도, 하나님의 지지가 있어도 본인이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들 앞에 엄청난 여정이 있었지만 스룹바벨에게 내린 말씀은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직 영으로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스룹바벨 앞에 있는 큰 산은 스룹바벨의 시작 앞에서 이미 평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일은 결단하는 그 순간 시작된다.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아무리 큰 산이 있어도 그곳을 향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이 은총으로 함께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2. 치유를 넘어 회복으로

(1) 치유

치유와 회복의 개념은 다르다. 치유는 일회적 사건이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치유를 경험한다. 치유는 실제적으로 내가 고통스럽게 묶인 것으로부터 영혼육의 자유를 얻는 것이다.

[이사야 61:1]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위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사역에 대한 예언이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모든 가난과 배고픔(오병이어, 만나와 메추라기의 반복-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날 그 시간에 내린다)에서 자유를 얻었다.

마음이 상한 자들과 포로 된 자들, 갇힌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 자유를 얻었다. 그들을 오랫동안 묶어 왔던 질병과 마음의 병,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바로 이 사건이 치유다. 치유는 일회적이다. 치유의 핵심은 자유다.

(2) 회복

그러나 치유와 회복은 다르다. 예수님은 치유하신 후 반드시 다음 단계를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에게 자유를 주셨다. 여인의 죄를 사해 주셨다. 여인은 치유를 경험했다. 죄의 묶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끝내시지 않는다.

[요한복음 8:11]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핵심 포인트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다. 무슨 말인가? 여인의 힘으로 절대 나올 수 없는 죄의 사슬에서 여인을 자유롭게 하셨지만, 언제든지 다시 그 묶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를 그토록 괴롭게 했던 이 죄의 문제에서 이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의 다음 단계가 바로 '회복'이다. 회복은 무엇인가? 회복은 '온전한 상태'를 말한다. 이전보다 더 강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회복은 모든 기능이 정상 이상이 된 것을 말한다.

[사도행전 1:6]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질문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회복은 원어로 '다시 구성되다'라는 의미다. 원형의 모습이 복원되는 것이다. 단순히 어떤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을 넘어 원형의 모습이 복원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를 넘어 회복으로' 가야 한다. '온전한 모습'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회복은 과정이다. 칭의로 의롭게 된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여정이 '성화'다. 성화는 영광에 이르는 길이다.

이전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은 '회복'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회복은 노력이 필요하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모든 기능을 원래의 상태로 돌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회복의 여정이다.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이 회복의 여정이다.